

“5·18 반목은 그만, 이제는 역사의 시간”

최영태 전 전남대 5·18연구소장
“특전사 참배·취지 공감 불구
공동선언문은 일부 수정해야
민주묘역 참배 누구든 개방을
진상규명·처벌 8부 능선 넘어
5·18정신 민주적 공론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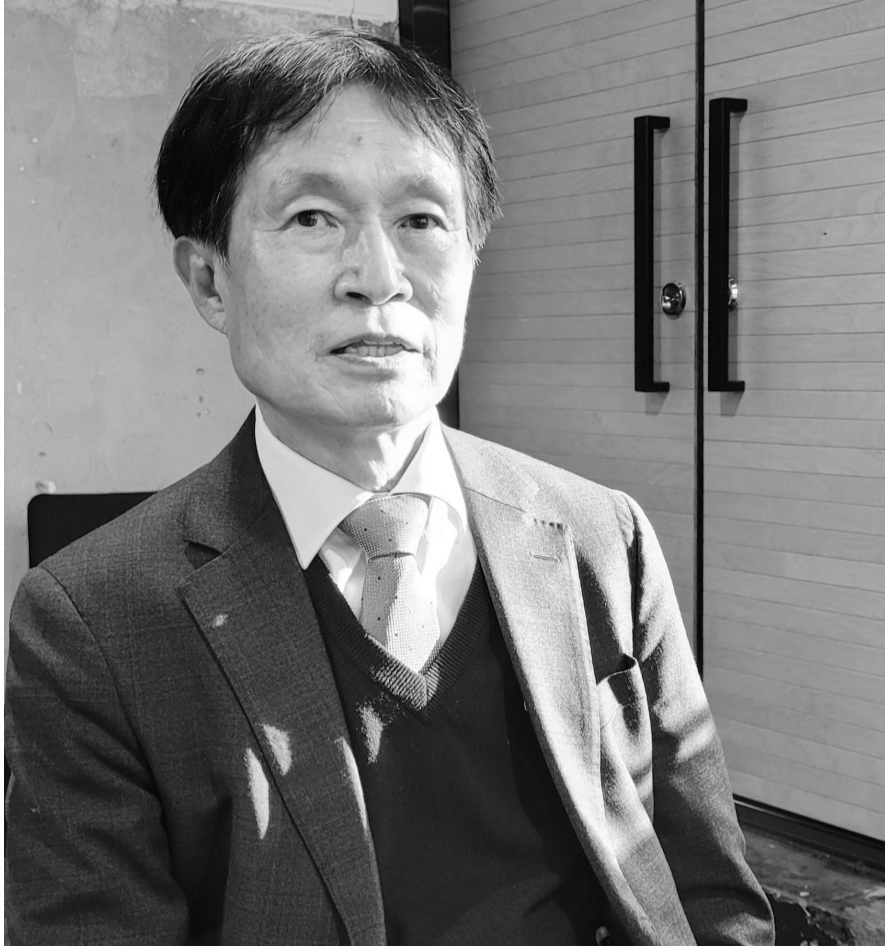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특전사회)의 5·18묘역 참배는 환영하지만 선언문은 아닙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특전사회가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서 강행된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공동선언식)’을 두고 5·18단체와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최영태 전 전남대 5·18연구소장(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은 신중히, 그러나 확고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간 제5대 전남대 5·18연구소장을 역임하며 전국 최초로 5·18강의를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직접 가르치는 등 수십년간 5·18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다.

최 교수는 이번 공동선언식에 대해 “참배도, 행사도 좋다. 다만 공동선언문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행사 당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특전사회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전 10시로 바뀌어 진행됐다. 이를 두고 시민단



전남대 5·18연구소장을 지낸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5·18공법단체와 특전사 단체의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에 대해 “참배도, 행사도 좋다. 다만 공동선언문은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총평했다.

체는 ‘기습 참배’, ‘도둑 참배’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5·18묘역은 참배하려는 누구에게든 개방돼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재판관 노릇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시민사회의 “화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있고 난 후

구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재판관 노릇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지만 (진상규명은) 이미 8부 능선을 넘은 상황”이라며 “3년간 5·18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했지만 특별히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지 못한 이유는 이미 밝혀질 것은 대부분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5·18 당시 유혈사태의 중심인물이자 발포명령의 최종책임자가 전두환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사법부에서도 확인됐다. 전두환은 1996년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정호용, 이회성, 황영시 등 전부 중형에 처했다. 사형이 폐지된 당대에 전두환이 최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후에 사면됐다고 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에 행해진 법적 응징이 자칫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공동선언식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반목의 상대였던 특전사 단체와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 5·18 전국화나 왜곡을 해소해 나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최 교수는 “이번 행사 이후 특전사회가 홈페이지를 전면 정비하면서 왜곡·편향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 나름의 성과가 아닌가”라며 “아직도 북한군 침투설과 같은 5·18 관련 왜곡이 많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특전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왜곡과 편향에 대응한다면 전국화와 진실규명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최 교수는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구성에 대해 꼬집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공동선언문의 요지가 ‘계엄군도 피해자다’라는 방향이다”며 “이러한 내용보다는 ‘특수신병으로 불가피한 과잉대응에 대해 선배들 대신 사과를 드린다’, ‘반성적 차원에서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아보인다”고 아쉬워했다.

특히 공동선언문 중 ‘상부의 명에 따라 공적인 임무’를 짚으며 “화해 취지를 반감시키는 표현이 될 수 있다. ‘일부 정치군인의 명에 따라’로 변경하고 ‘공적’이라는 단어를 빼는 등 선언문을 수정하며 시민사회와 갈등을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최 교수는 “어느덧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3년이 지나 역사의 시간이 됐다. 생각이 다르다고 격렬한 비방전만 늘어놓는 것은 5·18정신에 맞지 않다”며 “앞으로도 5·18을 두고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등장할 것이다. 싸움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5·18을 둘러싼 고민을 풀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글·사진·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광주교육청,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대책 마련

지세움에서 학폭 대책 협의회
치유 지원 강화하고 재발방지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3일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 기관인 ‘지세움’에서 ‘20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발전방안 협의회’를 실시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이점선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들과 담당 부서 과장, 지세움 운영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세움(지지하기·세워주기·마음의 힘이 움트길)’은 시교육청이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주간보호형(통학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및 맞춤형 지원 기관이다. 지난 2009년에 폐교된 구 지원 중학교 건물 3층에 문을 열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와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 대상 상담과 교육도

진행한다.

이날 이점선 교육감은 ‘지세움’ 내 학생 숙소, 프로그램 운영 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후, 아이들의 치유와 회복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교육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광주교육의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광주 북구 야산서 숨진 영아 발견... 경찰 수사

생후 한달... 5일 간 방치 추정

광주의 한 야산에서 생후 한 달 영아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숨진 영아는 검은 비닐봉지에 수일째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접수는 해당 등산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 등산로 인근에 비닐봉지가 놓여있는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영아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으며 5일 정도 야산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숨진 아기를 등산로에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정성현 기자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빌려준 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받아 드립니다**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명당(穴) 만드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2023. 3. 8 (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 478-1)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풍수+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3. 3. 1 (수) 오후 7시.
 · 장 소: 상 동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 (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공개
- 기강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 (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 (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 (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광고문의

팩스 062) 519-0709
 직통 062) 519-0710

全南日報

아파트분양계약서 분실공고

· 주 소: 광주광역시 동구 선교동 273 선교지구우방아이유엘1차 아파트 101동 2003호
 · 계약자: 이지호
 · 번호: 010-6690-7781

드론타임 드론 촬영·편집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타임 010-5681-8084

한정승인 공고
 광주기정법원 해남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3년414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사망자 한정일(880809-1*****)
 최후주소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안리목길 10-14 (이월리)

위 망 문정일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028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3월 6일

공고인: 문정일
 한정승인 수리일: 2023년 2월 21일
 공고기간: 2023. 3. 6. ~ 2023. 4. 5.